

# 도, 내수면 생태계 복원으로 어업기반 확충

### 올해 7.5억 원 투입... 불량어도 6개소 개·보수사업 추진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외래·위해 어종 91톤 수매

전북도가 어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내수면 생태계 복원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불량어도 정비와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 퇴치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을 조성한다는 방안이다. 도내 주요 하천에 설치돼 있는 어도를 대상으로, 생태적 연계율이 미흡하거나, 수산자원 이동이 어려운 내수면의 어도를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어도(魚道)는 물고기가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 구조물이다. 수산자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만든 인공구조물이지만, 낡고 파손돼 제 기능을 못 하는 불량어도는 오히려 내수면 생태계에 걸림돌이 된다. 도는 지난해까지 총 16개의 불량어도를 개·보수했고 올해에는 7.5억 원을 투입해 진안 2개소와 장수 4개소 등 총 6개소를 정비할 예정이다. 선진강 상류인 진안 2개소, 장수의

백운천 1개소, 요천 1개소, 오수천 2개소가 대상이다. 도는 이와 함께, 강한 번식력과 육식성으로 자연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위해 어종(5종)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퇴치대상 외래·위해 어종은 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붉은거머리, 강준치이다. 이 중에서 강준치는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에는 현재 포함돼 있지 않으나, 강한 포식력과 번식력으로 내수면에서 닳치는 대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생태계 먹이사슬을 뒤흔들고 있어 2021년부터 퇴치 대상 어종으로 포함했다.

도는 올해도 3.6억 원을 투입해 산란기 전인 4월부터 7월까지 91톤을 퇴치할 계획이며, 시·군에서 선정된 내수면어업계 및 자율관리공동체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퇴치함으로써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로 했다. 나해수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토산어종의 서식 공간확보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수산자원 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속 가능한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상호 연구협력 지속·강화” 다짐

### 전북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MOU 체결·공동세미나 “도로·교통·건설정책·지역 현안, 공동해결하자”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은 지속적인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2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업무협약(MOU) 체결하고,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MOU 및 공동세미나는 지역현안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전북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 체결과 함께, 앞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활발한 인력 교류, 지역 건설정책에 필요한 정책발굴, 공동연구, 교육 참여 등 건설기술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의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동세미나에서는 전북연구원

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 유역 인(p) 고도 처리 등 비점오염원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권혁남 전북연구원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건설기술분야 핵심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보다 체계적인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병석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연구원과 함께 새만금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산업 육성의 디딤돌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도내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위한 유관기관 ‘맞손’

### 전북 일자리 유관기관네트워크 회의 13개기관·기업참석·상호협력 다짐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전정희)는 12일 '2022년 일자리 유관기관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 도내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창출을 위한 유관기관 담당자들 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일자리정보를 공유하며, 도내 고용동향을 파악했다.



기관 및 기업이 참석했으며, 지역 내 취업 활성화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 취업지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과 상호협력 다짐의 시간이 됐다. 전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김인수 책임컨설턴트는 “올해도 채용예정보자 및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고용위기 해소 등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과 일자리 사업 발굴 등 전북도 미래 일자리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 양성에 주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정희 센터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사장시키지 않고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

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기관별 사업 공유로 협업해 업무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고, 건설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경력단절여성뿐 아니라, 모든 지역 내 구직자들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장은성 기자

## 새만금 상·하수도시설 구축 공동 추진

### 새만금청·새만금공사·수자원공사, 업무협약 체결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이 12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병재),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와 함께, 새만금지역 상·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주도로 사업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해 개별 사업시행자들의 기술적, 재정적 부담을 줄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 공공사업자

지정 등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새만금개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각각 하수도, 상수도 분야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상·하수도시설 설치 사업시행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개별 사업시행자들이 부담한 시설 분담금으로 새만금 지역 내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하수도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예산 절감과 체계적인 통합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유호상 기자

## ‘산업평화 모범사업장·대상’ 선정 공모

### 내달 13일까지 접수

전북도가 산업현장에서 노사화합과 상생 분위기가 조성으로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모범사업장과 노동자·사용자, 노동조합·사용자 단체를 선정해 예산지원 및 포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4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며,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대상자는 사업장 관할 시·군 노사협력 담당부서, 전북경영지총협회, 전주·군산·익산·전북서남상공회의소, 한국·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노동·경제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대표 기업체 대표(산업평화대상)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장은 현지조사와 전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사를 거쳐 7월중에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6개소(대기업 1, 중견기업 2, 중소기업 3)와 산업평화대상 12명(개인 6, 단체 6)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전북도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내에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고, 산업평화를 이룩한 사업장 중에서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을 선정한다. 지원혜택은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노사화합 증진 프로그램 사업비로 대기업 1곳 15백만원, 중견기업 2곳 각 12백만원, 중소기업 3곳 각 7백만원, 총 60백만원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산업평화 대상은 전북도 도지사 명의의 상패가 수여된다. /유호상 기자

## 도, 산불발생 지속적인 단속 실시

### 17일까지·봄철 대형산불 대책본부 운영

전북도가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봄철 대형산불 방지기간인 오는 17일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 전북에서는 25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유독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지난 대산선거일 등 공휴일에

집중(13건, 52% 차지)돼 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공휴일 전날 발생한 산불도 6건(24%)이 발생해 이를 합치면 무려 19건의 산불발생이 공휴일 및 그 전날에 발생해 74%를 차지했다. 아울러, 도내 25건 중 8건이 일몰 1

시간 전부터 야간에 발생한 산불로 32%를 차지했다. 도 산림당국은 시·군을 통해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진화대의 근무시간을 일부 조정함과 동시에, 일몰 시간대 적극적 산불예방 활동과 마을 방송을 통해 산불예방에 힘쓰고 있다. 도는 최근 영농철에 접어들면서 논밭두렁, 농산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소각 산불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이번 주말 강력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이번 단속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절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이러한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전북도 산림당국은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4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봄철 산불예방 및 방지기간인 다음달 15일까지는 도민들의 산불조심에 동참해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제42회 장애인 날 기념 제16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

전국의 장애인 여러분!  
제16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가 아래와 같이 실시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 참가 대상: 만16세 이상 장애인 누구나
- 참가제외: 전국대회에서 대상, 최우수상 수상자, 가수활동자 제외
- 참가접수: 신청서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증명서)(국명, 성명, 전파, 주소 기입, 개인,그림 촬영)
- 접수방법: 방문, 전화(063)236-6678, 팩스(063)287-6676  
\* 방문주소: 전주시 덕진구 건삼로 1, 5층
- 예 선: 2022.06.05.(일) 오전 10시(동남문화광장)
- 본 선: 2022.06.05.(일) 오후 2시(동남문화광장)  
- 개회식, 공연, 경연, 평론권 추첨 등

○ 일 시: 2022.06.05.(일) 오전 10시  
○ 장 소: 전주 동남문화광장(동남문 옆)  
○ 주 최: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 주 관: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봉사단, 전주매일신문사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봉사단**  
☎ 063-286-6678 ☎ 063-287-6676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http://www.jmaeil.com)